

제 747 호
베트남 투자뉴스
VIETNAM INVESTMENT NEWS

2021년 3월 22 일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투자뉴스 제747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의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47호 (3월 22일자) 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3

- 빈패스트, '21년 2월 자동차 판매 4위 기록, 포드·혼다 추월
- 베트남, 생산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확대
- 호찌민 편선년 공항 제3터미널, 10월에 착공 예상
- 3월 18일 자정부터 하이즈엉 성 관할 3개 기차역 운영 재개
- 한국 TV 베트남 시장 점령
-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5월 1일 공식 발효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5

-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라, 명품 시장 기회의 땅 베트남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6

- 금주의 통관 Q&A

[웹툰]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7

- 제2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신남방·신북방 정책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9

- 2021년 3월 19일 업데이트

[안내] 2021 섬유·의류산업 FTA활용 전략 웨비나

- 2021년 3월 30일(화) 10:00-11:30 Zoom 웨비나
참가신청링크

[별첨]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

- 2021년 3월 19일 업데이트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빈패스트, '21년 2월 자동차 판매 4위 기록, 포드·혼다 추월



자료: VINFAST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에 따르면 '21년 2월 자동차 판매량은 타코 기아가 5,769대를 판매하며 1위, 현대 TC 모터가 3,021대로 2위, 도요타가 2,411대를 판매하며 3위를 차지했으며, 빈패스트는 1,718대를 판매하여 1,281대를 판매한 혼다와 1,094대를 판매한 포드를 제치고 판매순위 4위를 차지함. VAMA는 2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1만 3,585대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나 올 1-2월 동안 판매 대수는 총 4만 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힘.

[Vietnam Investment Review, 3.13.]

베트남, 생산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확대

베트남은 환경보호법(EPL)에 따른 생산자책임확장(EPR)을 시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협력 중으로서 2022년 1월에 발효예정인 신규 환경보호법은 EPR의 기본규정을 설정하여 제조업체가 부피 또는 제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고 의무적으로 재활용 사양을 준수하도록 함. 제조업체는 폐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거나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에 기부할 수 있음. 신규 환경보호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배터리 및 축전지 생산 기업, 전기·전자 제품 생산기업, 타이어 및 튜브 생산기업, 윤활유 제조기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기업, 포장재 생산기업 등 6개 분야임.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17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환경보호법(LOEP2020)의 경우 환경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규정이 2021년 2월 1일 부터 일부 발효되고 나머지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또한 신규환경법은 2014년 부터 시행된 환경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할 예정임

[Vietnam Economic News, 3.15.]



호찌민 뚝선녓 공항 제3터미널, 10월에 착공 예상



자료: VnExpress

베트남공항공사(ACV)는 24개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올 10월 투자규모 총 4억 7,780만 달러의 호찌민시 뚝선녓국제공항 제3터미널을 착공한다고 발표함. 국방부는 뚝빈군에 16헥타르 면적의 제3터미널 부지를 정부에 양도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3월 16일 기준 뚝선녓 국제공항 제3터미널 건설사업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상태로 완공 될 경우 연간 2천 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제1터미널의 과수요를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3.16]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3월 18일 자정 부터 하이즈영 성 관할 3개 기차역 운영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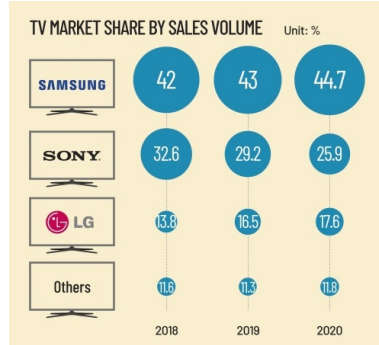
자료: Nhandan

베트남 철도공사의 하노이-하이퐁 철도선 하이즈영 역 운영 재개 긴급 승인제안 (2176/BGTVT-VT)을 교통부가 승인하며 3월 18일 자정 부터 하이퐁-하노이 철도선의 하이즈영 성 관할 하이즈영역, 푸타이역, 감잠 역 등 3개 역의 운영이 1월 28일 부터 금지 되던 48일 만에 재개됨.

[Dantri, 3. 17]

한국 TV 베트남 시장 점령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삼성 TV는 베트남 시장 점유율 44.7%,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2% 상승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소니는 25.9% (전년 동기 대비-6.7%)로 2위, LG는 17.6% (전년 동기 대비+3.8%)로 3위를 차지함. 하노이의 한 전자제품 판매 매장은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등의 TV 판매율이 감소 했으며 2년 전 부터 도시바 TV판매를 중단 했다고 밝힘. 기존 베트남 TV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의 주요 TV 생산 회사들은 판매율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파나소닉은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웰빙가전 솔루션을 판매하고, 샤프는 TV생산 중단 후 LCD만 생산하는 등의 사업 축소 및 전환을 실시함. (하노이무역관) [Vietnam Investment Review, 3.18.]



자료: GFK, Vietnam Investment Review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5월 1일 공식 발효



자료: Asia Perspective

UKVFTA는 베트남과 영국간의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1년 1월 1일 부터 임시로 발효 된 바 있음. 베트남 정부는 3월 12일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하는 결정서 (31/NQ-CP)를 발행하고 이달 말까지 5월 1일 UKVFTA 공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 할 것이라고 밝힘.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올 1-2월 동안 베트남과 영국의 수출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05% 증가한 10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함.

[Vietnamnews, 3. 18]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라, 명품 시장 기회의 땅 베트남

- 2024년까지 베트남의 백만장자는 4만 2,324명, 3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는 753명이 될 것으로 전망 -
-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 위주, 명품 시장의 주 고객은 밀레니얼 세대 -

베트남의 고소득층 현황

2018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6개국에서 약 6,000명의 부유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2는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명품과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폭넓게 향유하고 취득할 수 있는 계층"을 부유층으로 정의했다. BCG는 2018년에는 베트남에서 인구의 5%만이 부유층으로 분류되었으나,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16%가 부유층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Knight Frank의 2020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총 2만 5,727명이며 3천만 달러(한화 약 34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458명, 1억 달러(한화 약 1,132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5명으로 보고했다. 2024년까지 베트남의 백만장자는 4만 2,324명,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753명,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1명 증가한 6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고소득층 증가 전망과 관련한 현지 기사

Vietnam forecast to see growing number of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by 2025
The number of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living in Vietnam is forecast to grow strongly in the next five years by Knight Frank.



자료: VnExpress(2021.3)

베트남의 명품 시장 규모 및 인기 품목

2020년 베트남의 명품 시장 규모는 2019년에 비해 5.8% 감소한 9억 7,400만 달러였다. Statista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7.1% 성장한 1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2025년까지 연평균 7.1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가방·지갑·벨트 등의 가죽 제품(29.4%)이다. 의류 (25.5%), 시계 및 귀금속 (21.3%), 화장품 및 향수 (20.1%), 안경 및 선글라스 (3.7%)가 뒤를 잇는다.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 위주, 명품 시장의 주 고객은 밀레니얼 세대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는 명품 소비가 다른 도시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호찌민시 1군과 하노이 호안끼엠 군에 위치한 명품 매장들은 대형 유틸리티 및 쇼핑몰에 신상품을 배치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유럽의 유명 명품 브랜드 들은 베트남에서도 명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베트남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고전적인 명품 브랜드의 인기가 높았으나 예전에 비하여 명품이 대중화 되면서 일부 부유층들은 더 비싸고 독특한 제품을 착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를 원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보수적이었던 기성세대들보다 명품 소비에 적극적이며 이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의 명성에 기대지 않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통 명품 명가 브랜드를 여전히 선호하지만 일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한정판, 독특함, 유명 인플루언서의 해당 명품 사용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명품 브랜드,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여겨

샤빌스 베트남의 한 관계자는 하노이에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등 루이비통 모엣상동 헤네시(LVMH)의 대표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 한 것은 해외 명품 기업이 베트남을 신뢰한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디지털 미디어에 민감하고 해외 여행 및 유학 경험이 많은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유명인을 통해 명품을 보고, 실제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중산층 역시 명품에 소비하기를 원하고 이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중저가의 명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베트남에 공식 수입된 명품은 세울 때문에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 10-15%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발효된 EVFTA 덕분에 베트남의 양대 명품 유통사업자인 IPP그룹과 Tamsom은 EU국과의 협의를 도와 파리나 런던의 가격과 동일하게 베트남 명품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이 유럽 현지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내국인에게 명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베트남의 상류층은 물론 중고 소득자들도 유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TA 관련 Q&A

**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특혜규정 **

Q: EU-베트남 FTA(EVFTA)의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 실시간 업데이트

2021.3.18 기준

A : 2021년 2월 8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의 공지에 따르면, 베트남 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 산으로 간주하여 EU-베트남 FTA 원산지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23일 EU 수입신고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신고분은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을 받으시고, EU 당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EVFTA 혜택을 받기위한 의류제품은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적용으로 한국산 직물(Fabrics)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제61류, 제62류)을 제조하고,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의류제품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리입니다.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 적용 방법

(1)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

- 원산지 기준 : 한-EU FTA 직물 HS별 원산지 기준
- 증빙방법 :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 문구 기재
- 인증수출자 : 6,000유로 초과 수출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필수

(2)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의류

- 대상 : HS 61, 62로 시작하는 물품
- 원산지 기준 : EU-베트남 FTA 완제품 HS별 원산지 기준
- 증빙방법 : 아래의 문구를 기재한 EUR.1 Form 원산지증명서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



동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EU 통관 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베트남이 의류생산에 투입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EVFTA의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은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KOTRA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의 본격 적용이 개시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한국-베트남-EU 연결과정 수행을 통한 수출성약 창출을 적극 보조할 계획입니다. 한국 내 인증수출자 인증 등은 관세청 FTA 담당 부서를 통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2.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2화

신남방·신북방 정책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우리 교역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남방 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신남방 정책

우리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아세안·인도를 4강에 준하는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신남방 협력 비전으로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공동체)'을 제시하였습니다.

2. 신북방 정책

우리 정부는 거대한 시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7.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톡)을 계기로 9개 다리* (9-Bridge) 전략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우즈벡, 카자흐) 순방('19.4월), 국무총리의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19.7월)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 한-러 양국간 9개 분야별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 전략(①조선, ②전력, ③가스, ④항만, ⑤북극항로, ⑥철도, ⑦산업단지, ⑧농업, ⑨수산)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3대 목표

비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사람공동체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0년까지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명 달성

상생번영 공동체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 협력 기반구축
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불
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불

평화 공동체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비전: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기교 국가' 경제성 회복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를 확장



동북아-한반도 평화 정착



동북아책임공동체-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

신북방정책 4대 목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상호이해 증진



주요 경제 지표

2021년 3월 19일 기준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2.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국가명					
한국	8,992	71,402.65	35	122.91	1,051.44
일본	4,652	61,967.95	15	1,450.19	1,635.07
싱가포르	2,649	57,654.91	16	861.07	1,071.97
대만	2,799	33,760.42	6	14.90	85.28
홍콩	1,957	26,269.69	10	231.09	275.39
버진아일랜드(영)	869	22,210.97	2	4.20	61.47
중국	3,157	19,297.10	24	374.91	759.98
말레이시아	646	12,954.93	1	0.01	7.74
태국	604	12,608.96	1	6.33	79.51
네덜란드	375	10,507.99	1	80.61	98.24
미국	1,083	9,528.15	2	110.80	126.95
전체 합계	33,215	388,825.99	126	3,308.67	5,458.17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연번	구분 산업	2021. 2.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02	229,081.77	76	1,341.05	3,040.19
2	부동산경영	948	60,748.06	7	392.52	484.73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54	30,017.27	3	1,409.44	1,443.74
4	호텔, 외식서비스	891	12,518.79	1	0.22	21.06
5	건설	1,751	10,675.07	-	-	8.03
6	도소매, 유지보수	5,204	8,528.54	13	12.21	45.19
7	물류운수	880	5,501.67	4	107.56	113.12
8	채광	108	4,897.63	-	-	1.08
9	교육, 양성	589	4,412.98	4	0.88	29.07
10	정보통신	2,338	3,976.51	7	1.25	15.46
11	농, 임, 수산	506	3,779.19	1	7.65	69.72
12	예술 오락	138	3,391.52	-	-	0.25
13	기술과학전문	3,553	3,783.81	8	35.76	152.8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926.02	-	-	10.9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0.31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2	975.86	2	0.14	3.90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18	금융, 은행, 보험	76	752.76	-	-	18.52
19	기타산업					
	합계	33,215	388,825.99	126	3,308.67	5,458.17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요 경제 지표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2
수 출	2,447.2	2,634.5	2,814.7	485.4
수 입	2,375.1	2,535.0	2,624.0	472.5
무역수지	72.1	99.5	191	12.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9,299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4,761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6,89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5,455
신발류	16,297	18,299	16,551	3,218
수산물	8,831	8,572	8,384	1,011
목제품	8,855	10,526	12,323	2,441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1,620
철강제품	4,558	4,160	3,035	603
채소	3,822	3,764	3,259	610
기 타	67,951	71,337	76,793	12,635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48,54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2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10,85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6,8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3,638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1,858
철강제품	9,896	9,485	4,526	790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1,588
유류제품	7,614	1,047	1,056	151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1,253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1,309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879
기 타	86,801	98,960	100,175	18,122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47,25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13,829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7,999
3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2,966
4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3,162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1,797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1,191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1,043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1,093
9	영 국	5,424	5,776	5,758	4,955	927
10	태 국	4,786	5,494	5,272	4,917	871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13,865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48,743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15,415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8,399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3,187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3,119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2,261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1,909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1,285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950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657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904
	기 타	38,395	46,523	48,341	49,833	9,021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47,107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주요 경제 지표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2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8,550(6.7)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3,727(11.5)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4,823

자료원 :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2,003(-4.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1,780(42.1)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564(3.0)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377(-1.1)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197(-19.6)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326(18.0)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181(-13.4)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125(-11.3)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186(-4.1)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137(-11.0)
기타	18,808	15,874	16,187	14,998	2,674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8,550(6.7)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842(-4.5)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547(5.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	1,137(88.3)	1,197(5.2)	1,027(87.1)	51(-65.9)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216(10.2)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127(29.8)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419(174.3)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85(1.6)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110(33.8)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83(-16.3)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83(30.7)
기타	5,279	6,197	6,330	6,473	1,164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3,727(11.5)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